

경쟁적 경제시스템의 윤리적 가치판단: 나이트와 베블런을 중심으로*

박 종 현**

논문초록 본 논문은 나이트가 쓴 “경쟁의 윤리”를 상세하고 심도 깊게 분석했으며, 베블런의 〈유한계급론〉 및 〈장인본능과 산업기술의 상태〉와 비교했다. 이를 통해 나이트의 명시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두 경제학자의 공통점이 컸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욕구나 동기의 성격에 관한 관심, 경쟁적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평가, 경쟁의 윤리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 불쾌한 비교 및 경쟁적 지출에 대한 관심 등에서 그 공통점이 두드러졌다. 이들의 논의는 경제학의 가치판단에 ‘윤리의 문제’를 다시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과 경제 윤리 및 ‘삶의 일반적 목적들’에 부합할 새로운 규범의 정립을 촉구한다.

핵심 주제어: 프랭크 나이트, 쏘스타인 베블런, 경쟁의 윤리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B1, B3, B4

투고 일자: 2022. 11. 7. 심사 및 수정 일자: 2022. 12. 9. 게재 확정 일자: 2022. 12. 21.

* 본 논문은 익명의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높고 성의 있는 논평 덕분에 내용과 형식 모두 크게 개선될 수 있었다. 세 분의 심사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mail: ecohis@gnu.ac.kr

I. 머리말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기업경영은 ‘이윤과 주주 중심의 흐름’에서 ‘목적과 이해당사자 중심의 흐름’으로 전환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이윤은 기업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고, 기업의 목적은 기업 본연의 ‘업’(業)을 통한 가치창출이 되어야 하며, 경영자들은 이들 목적을 길잡이 삼아 ‘기업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최근 들어 기업이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를 얻고 경제적 가치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만 한다는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Porter and Cramer, 2011), 환경·사회·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기업의 새로운 규범으로 뿌리내리는 듯한 상황도 이러한 흐름이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Carney, 2021).

그러나 경제학에서는 기업경영의 목적이나 기업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둘러싸고 진행 중인 이러한 변화가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지는 않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실증과학의 정체성을 표방하며 경제학을 윤리학과 구분하려 한 라이언 로빈스(Lionel Robbins)의 전통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르면, “경제학은 확인가능한 사실을 다루지만, 윤리학은 가치매김과 의무를 다룬다. 이 두 연구 분야에서는 같은 차원의 담론이 구사되지 않는다. 실증연구가 만들어내는 일반화와 규범연구가 만들어내는 일반화 사이에는 고정불변의 논리적 간극이 존재한다(Robbins, 1935, p. 244).” 이 입장에서 보자면, 경제학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 수단들 사이에서 선택이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분석하는 실증과학이기 때문에, 경제학적 판단에서는 주어진 목적의 옳고 그름이나 바람직함과 같은 윤리적 가치판단 또는 당위의 문제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경제학자는 주어진 목적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것은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행해지는 것이며, 사실과 가치, 실증연구와 규범연구는 목적·운영원리·작동방식 등이 상이하므로, 규범연구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¹⁾

1) 실증연구와 규범연구를 엄격히 분리하려는 이러한 흐름에 대한 반론이 없지는 않다. 경제시스템의 윤리 문제가 본 논문의 주요 관심사이므로, 그 핵심만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과학에서 ‘사실’의 ‘확증’은 분리된 하나의 ‘사실 명제’에 대한 확인이나

경제학이 20세기 중반 이후 실증과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함에 따라 경제학에서는 목적, 규범, 윤리, 가치판단, 바람직한 삶과 같은 용어는 대부분 사라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 철학자가 세계화와 양극화라는 경제현안을 철학적 논변의 대상으로 삼고,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원조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전설적인 경제학자 프랭크 나이트(Frank Knight)²⁾를 호명하며, “올바른 종류의 욕구”, “경제적 기여의 가치”, “경제시스템의 윤리적 평가” 등의 용어들을 경제학 공론장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Sandel, 2021, pp. 138, 138, 139). 이러한 작업을 통해 그는 시장에서의 성공이 개인적 능력의 발휘이자 사회의 기여로 존중받는 한편 노동의 기여와 존엄이 무시되는 세대를 우려하면서, 시장의 평결이 놓치고 있는 지점은 무엇이며, 어떤 활동이 공동선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기여인지에 관한 성찰을 촉구한다.

본 논문은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이 〈능력의 폭정〉(The Tyranny of Merit)에서 검토한 논문인 “경쟁의 윤리”(The Ethics of Competition)를 최대한 상세하고 심도깊게 분석한다. 1923년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에 발표된 이 논문은 46쪽 분량의 긴 글로, 경제학의 사명, 가치이론의 대상과 방법, 자유방임과 자유경쟁에 대한 원론적 옹호 및 구체적인 평가, 경쟁적 경제시스템에 대한 윤리적 가치판단, 욕구와 동기와 목적과 결과의 성격에 대한 가치판단 등의 주제가 망라되어 있다. 그리고 “경쟁의 윤리” 논문에는 당대의 주류경제학을 대표하는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나이트가 비주류경제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쏘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을 비판하는 대목이 일부 있는데, 이 또한 본 논문의 검토 대상이다. 베블런의 이론에 대한 나이트의 비판을 살펴보고, 베블런의 대표 저작인 1899년 발간 〈유한계급론〉과 1914년 발간 〈장인본능과 산업기술의 상태〉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베블런에 대한 나이트의 비판은 타당한지, 그의 비판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지, 나이트의 베블런에 대한 명시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공통점은 있다면 그 핵심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서도 검토를 한다.

부정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가설 전체의 구조에 대한 확인이나 부정이 필요하다. 사실들은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고, ‘사실’에는 ‘이론’이 담겨 있으며, 이론들에는 ‘가치’가 담겨 있으므로,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둘째, 과학의 객관성은 과학적 탐구로부터 모든 규범 명제를 제거해서가 아니라, 연구를 안내할 수 있는 적절한 규범적 기준을 선별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Bush, 2009, pp. 297-299). 가치판단 문제를 다룬 국내의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신정완(2018), 이규상(2022) 등이 있다.

2) 신자유주의, 특히 로빈스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이규상(2022)이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베블런의 이론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았던 반면,³⁾ 나이트 연구는 드물었고,⁴⁾ 나이트와 베블런을 비교한 본격적인 연구는 전세계적으로도 Tilman (1992)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경제학자들을 같이 묶어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하고, 우리 시대의 주요 현안과의 관련성도 해명하려 한다는 점에서 학설사적인 의의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제Ⅱ장에서는 나이트의 논문을 최대한 상세하게 분석하고, 베블런 비판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다. 제Ⅲ장에서는 〈유한계급론〉과 〈장인본능과 산업기술의 상태〉을 대상으로 베블런에 대한 나이트의 비판을 재조명하고,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한다. 제Ⅳ장에서는 이들 논의가 오늘날의 경제 현실에 주는 핵심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프랭크 나이트: 경쟁적 경제시스템의 윤리적 표준과 ‘경쟁의 윤리’

1. 샌델에 의한 나이트의 소환

샌델이 주목한 나이트의 핵심 논변은 “시장수요에의 부응이 사회에 대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기여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Sandel, 2021, p. 137). 이는 시장수요에의 부응은 욕구의 충족에 불과할 뿐이며, 그러한 욕구의 충족이 윤리적 의의를 획득하려면 충족시키는 욕구들이 도덕적 가치를 띠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샌델은 여기에 더해 나이트가 시장에 의해 측정된 경제적 기여의 가치와 실제 가치를 구분한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샌델에 따르면, 나이트는 ‘완전경쟁 시장에서는 각자가 자기 노동의 한계생산물에 따라 도덕적 자격을 얻는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 논거를 제시한 학자이다. 비록 그가 개혁적 계획이나 정책에 회의적인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의 대부로 기억되기는 하지만, 시장가격이 도덕적 자격이나 윤리적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생각에는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다(Sandel, 2021, p. 139).

샌델이 나이트의 원문을 소개한 것은, 시장의 승자를 칭송하고 시장의 가치를 사회로 투영하려는 신자유주의 흐름의 원조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저명한 경제학자가

3) 대표적인 연구로는 원용찬(2015), 김영용(2003), 홍기빈(2009), 한성안(2020) 등이 있다.

4) 나이트와 관련한 연구로는 전용덕(1994), 홍기현(2010), 홍기현(2018) 등이 있다.

실제로는 그러한 주장과 반대되는 견해를 펼쳤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시장가치와 시장사고를 신성시하는 최근의 시대정신을 뿌리부터 허물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그런데, 1923년 나이트의 논문에는 〈능력의 폭정〉에서 소개된 논점들 이외에도, 경쟁적 경제시스템의 윤리적 표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올바른 종류의 욕구는 무엇인지, 경제학이 공동선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이론적 틀은 무엇인지 등과 관련해 풍부한 논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2. 경제시스템의 가치표준과 경쟁적 경제시스템에 대한 윤리적 가치판단

나이트는 자유방임 시장자본주의를 옹호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20세기 자유주의 경제학을 대표하는 ‘시카고학파’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로, 개인의 자유와 창의라는 관점에서 뉴딜정책을 비판했으며, 신자유주의의 이념을 주창하고 전파하는 ‘몽펠르랭 소사이어티’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1923년 발표된 “경쟁의 윤리”에서는 경제학은 물론 철학·윤리학·사회학 등 분과학문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치밀한 논리를 바탕으로 자유방임·경쟁·개인주의·경쟁적 시장시스템 등을 이념적 편견 없이 뿌리부터 검토하고 있다. 이때 그가 보여주는 관점은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학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나 자유방임정책을 극단으로까지 제안한 밀튼 프리드먼(Milton Friedman)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이채롭다.⁵⁾⁶⁾ 나이트는 당대의 시장경제시스템을 “경쟁적 경제시스템”으로 규정하고,

5) 신자유주의 역사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필립 미로우스키(Philip Mirowski)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의 형성 초기에는 사업 경험이 있는 ‘유기적 지식인’들도 적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근본주의의 확산에 관심이 많은 기업가 옹호 지식인, 이데올로그 지식인들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유형의 신자유주의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한 대표적인 학자가 나이트이다. 나이트는 1965년에 보낸 서신에서 자신은 자유의 대의에 관심을 가진 우파 지식인인데, 다른 사람들은 기업가나 재산소유자의 사적 이익 제고에 더 큰 관심이 많으며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Mirowski, 2018, p. 896). 자유방임과 선택의 자유 그리고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나이트가 공동선을 지고의 가치로 섬기는 철학자인 샌델도 공감할 수 있는 논문을 쓸 수 있었던 여러 이유들 중 한 가지가 바로 기득권의 이익이 아니라 자유의 대의에 헌신하려는 마음가짐일 것으로 짐작된다.

6) ‘시카고학파’에 속한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가격기구에 대한 중시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핵심으로 한다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자면 연구방법과 연구주제 그리고 정책적 제안 등과 관련해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 이 점에서 나이트가 시카고학파의 통상적인 모습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이채롭기는 하지만 놀랄 만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 시카

이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이나 규제적 경제질서를 옹호하는 “사회주의”와 대비시켜가며, 이러한 “경쟁적 경제시스템”에 대한 “윤리적 가치판단”을 시도한다.

(1) 경제시스템에 대한 가치판단과 판단기준

나이트는, 경제시스템의 경우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때의 효율에 의해 판단”되기보다는 “그것이 산출하는 욕구와 그것이 사람들에게 심어놓는 성격의 유형에 의해 윤리적으로 판단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Knight, 1923, p. 592). 이러한 입장에서 보자면, 경제시스템에 대한 가치판단은 크게 그 시스템이 구성원들의 욕구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잘 충족시키는데에 관한 판단 문제와 그 시스템이 충족시키고 새롭게 형성하기도 하는 욕구의 성격이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판단 문제로 나뉘는데, 전자도 중요하지만, 후자가 더 중요하다. 나이트에 따르면, 전자는 경제적 “효율”과 “경제적 가치”의 문제이고, 후자는 “사회적 효율”과 “윤리적 가치”의 문제로, 경제질서에 대한 종합적인 가치판단은 이 두 측면을 모두 포괄해서 이뤄져야 한다(Knight, 1923, pp. 580-581, p. 585).

경제시스템이나 “사회질서에 관한 판단은 모두 가치판단이며, 가치에 관한 공통의 척도(measure)와 표준(standard)을 전제로 한다”는 주장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Knight, 1923, p. 623). 이때 ‘척도’는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평가하거나 측정할 때 의거할 기준’ 또는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을 의미하며, ‘표준’은 ‘개별 사물이나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시금석’의 의미로 사용된다. 구체적 가치판단이 어떻게 가능하고 그가 말하는 가치표준⁷⁾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에 관해 명료하게 정리된 형태의 논의는 없으며, 논문 곳곳에 분산적으로 펼쳐져 있는데, 그 핵심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될 수 있다. ‘효율’, 즉 욕구를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충족시켜주는가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수량적인 측정이 가능하지만, ‘사

고학파의 다양한 연구방법론에 대해서는 전용덕(1994)를 볼 것.

7) 나이트는 ‘표준’(standard)의 의미를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의 의미인데, 가치표준(standard of value)이 되는 가격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개별 사물이나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시금석’의 의미인데, 윤리적 표준(ethical standard)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회적 효율’, 즉 충족된 욕구의 성격이 얼마나 바람직하고 윤리적으로 가치가 있는가는 수량적 측정이 불가능하고 ‘이상적 표준’(ideal standard)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질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경제시스템에 관한 가치판단과 관련한 나이트의 논의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으로는 ‘이상’을 상정하고, 그 이상에 비춰서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경제시스템이나 여타 선택지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방법론을 들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기존 경제질서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이 되려면, 기존 체제가 높게 평가하는 가치표준에 초점을 맞춰야”하며, “사회적 과정이나 사회적 결과에 대한 비판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가치의 척도(a measure of value)에 더해 가치의 이상(ideals of value)이 전제되어야” 한다(Knight, 1923, p. 582). 그는 “경제질서에 대한 가치는 ‘윤리적 이상이나 표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Knight, 1923, p. 605). 그리고 “이들 이상이 현실 세계와 별개로 설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 속에 위치하며, 달성가능한 목표가 아니지만 접근해야 할 패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Knight, 1923, p. 583).

나이트에 의하면, 경제시스템에 관한 가치판단의 양축 중 하나인 효율은 “달성된 결과의 수량”에 관한 것으로, “시스템이 가용자원을 동원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경제적 가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창출하는가의 문제, 곧 시스템이 수립한 표준에 의해 측정된 재화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고 욕구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는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Knight, 1923, pp. 620, 585). 이때, 효율에 대한 논의는 유용성이나 가치의 척도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바로 그 척도이다. 그런데 나이트의 입장에서 보자면, ‘욕구의 충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욕구의 성격’과 ‘올바른 종류의 욕구의 형성’이다. 나이트는 “욕구 충족을 가치의 최종적 기준으로 받아들이 수 없으며”, “취향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견해에 의존하는 대신,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취향에 대해 논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Knight, 1923, p. 580). 그에 의하면, “가치평가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욕구 그 자체에 대한 평가이며,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욕구는 ‘올바른’ 종류의 욕구를 향한 갈망”인 것이다(Knight, 1923, p. 580). 이러한 논의에 비춰볼 때, 나이트에게 ‘가치의 최종적 기준’은 ‘욕구의 충족’이 아니라 ‘올바른 종류의 욕구 형성 및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2) 올바른 종류의 욕구와 경제활동의 다면적 성격

이러한 논의는 결국, 욕구들은 어떻게 창출되며, 올바른 종류의 욕구는 무엇인지의 문제로 연결된다. 나이트에 의하면, 이들은 윤리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경제시스템의 윤리를 검토하려면 그것이 발생시키거나 육성시키는 종류의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어떤 특정 시점에서 존재하는 욕구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한다(Knight, 1923, p. 586). “경제적 질서는, 시스템의 가치 저울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비교하고 선별하는 것 이상의 일을 수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욕구의 창출이다. 사람들은 주어진 경제시스템 속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경제활동은 욕구의 충족에 더해, 욕구의 형성 및 근본적인 변형으로 확장된다”(Knight, 1923, p. 585). 나이트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상정되는 자유로운 개인이 사실은 경제시스템의 산물이라는 점 그리고 이처럼 힘이 센 경제시스템은 다시 문화적 환경의 산물이라는 점, 이 환경이 개인의 욕망과 필요(desires and needs)를 형성하고 경제적 능력도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Knight, 1923, p. 590).

다음으로, 올바른 종류의 욕구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윤리학의 논의를 준거로 ‘경쟁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의 문제를 검토한 대목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 좋은 것에 관한 윤리학적 논의는 크게 ‘쾌락’(pleasure)을 중시하는 쾌락주의(hedonism) 전통과 ‘규율’(discipline)을 중시하는 행복주의(eudemonism) 전통으로 나뉜다. 쾌락주의자들은 쾌락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 위에, 무엇이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쾌락인가와 관련해서는 내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의 향유를 중시한다. 행복주의자들은 인생의 목적을 인격의 완성에서 찾고, 선택에 따른 결과의 성격이나 특정 욕구의 성격에 주목하며, 이들 결과나 성격이 각자의 잠재력을 함양시키는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올바른 종류의 욕구가 무엇인지와 관련해, 쾌락주의 전통에서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향한 욕구’를, 행복주의 전통에서는 ‘개인의 잠재력을 완성하는 데 기여하는 욕구’를 올바른 종류의 욕구로 상정한다고 볼 수 있다(Knight, 1923, pp. 613-4).

1923년 논문에는 ‘경제활동의 의미와 성격’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바른 종류의 욕구와 관련한 논의는 행복주의 전통과 대단히 유사하다. 나이트는 저명한 신고전학과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시스템을 단순히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재화 및 서비스에 의존하는 욕구들의 충족 메커니즘으로 이해하는 기성 경제학자들의 교리는 협소한 관점”이라며, “욕구 충족의 관점에서 ‘조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Knight, 1923, p. 602). 그리고 현대인들의 다수가 삶의 많은 부분들을 생산적 활동에 할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을 전적으로 생산과정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좋음을 위한 수단이나 불가피한 악 또는 희생으로 전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생산에 대한 인식의 본격적인 전환도 촉구한다. 앞으로는 생산을 소비를 위한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 과정 그 자체의 목적지”(ends in the economic process itself) 이자 “자기표현 및 창조적 성취의 영역으로 새롭게 정립하고 그 속에서의 참여가 주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Knight, 1923, p. 602). 이제 자기표현이나 창조적 성취와 관련된 욕구가 바로 나이트에 의해 높게 평가되는 ‘올바른 종류의 욕구’임이 분명해지고, 경제활동의 사회적 역할이나 그 가치도 경제이론의 자장(磁場) 속에 들어오게 된다. “경제활동은 욕구충족의 수단이고, 욕구 및 성격 형성의 기관이며, 창조적 자기표현의 장이자, 경쟁적 스포츠로서의 의미도 지니게 된다. 사람들은 사업의 경기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의 인격을 빚어내고, 문명을 창조하게 된다”(Knight, 1923, p. 587).⁸⁾

나이트는 이러한 논의를 연장해 소비 영역에서의 ‘올바른 종류의 욕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다. 그는 소비로부터의 만족이 재화의 내재적 품질과도 관련이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사회적 상황과의 관련성임을 강조한다. 가령, 사회경제적 등급의 맨 아래층에 속한 비숙련 노동자의 경우 지배적 동기는 물리적 욕구의 충족이지만, 사다리의 위로 올라갈수록 물리적 필요의 충족에서 심미적이거나 사회적인 편의의 충족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소비는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들의 기쁨과 뒤섞이게 된다(Knight, 1923, p. 603).

(3) 시스템의 정당성과 윤리적 표준

“경쟁의 윤리” 논문의 궁극적 목표는 자유방임과 개인주의에 기반한 경쟁적 경제시스템의 윤리적 타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샌델이 시장에서 성공한 능력자들이

8) 이러한 인식은 경제활동을 소비자의 효용극대화로 축소시켜서는 곤란하며 생산자의 노동활동 및 시민으로서의 공동선에 대한 기여활동으로까지 확장해서 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샌델의 문제의식과 대단히 유사하다(Sandel, 2021, pp. 210-212).

부와 명예를 독점하는 현상의 윤리적·사회적 정당성을 문제삼으며, 역사의 먼지가 쌓이며 잊혀졌던 나이트의 1923년 논문을 백년 후에 다시 불러낸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주목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나이트는 “생산성을 자격이나 가치의 표준으로 보는 논의들”에 관한 검토를 토대로 “생산적 기여, 곧 생산을 통한 욕구의 충족을 가치의 윤리적 척도로 보는 가정들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살펴본다(Knight, 1923, p. 597). 나이트에 따르면, “자유방임 경쟁적 경제질서에서는 각각의 생산자가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것은 경향적으로만 가능”하며, “사람들을 각자의 능력에 맞게 세상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는 경향은 사람들의 보수를 실제 기여에 맞추는 경향보다 훨씬 약하다”⁹⁾ (Knight, 1923, p. 597).

이때, 나이트는 생산성을 자격이나 가치의 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경쟁적 시스템이 윤리적으로 정당한지의 문제와 관련해, 욕구의 충족에 대한 기여가 항상 가격 단위로 측정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가격은 ‘윤리적 가치’나 ‘인간적 의의’와 긴밀히 조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Knight, 1923, p. 598). 나이트에 따르면, “생산물의 화폐가치는 ‘수요’에 의해 결정되고, 수요는 다시 구매자의 기호 및 구매력 그리고 대체재의 존재에 좌우”되는데, 이들 요인은 경제시스템에 의해 창출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생산물의 가격, 곧 화폐가치로 표현되는 생산자들의 경제적 기여 중 상당 부분은 시스템 자체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여의 ‘공적’(功績)을 생산자 개인으로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Knight, 1923, p. 598). 이와 관련해 나이트는 시스템의 정당성이 “재화의 생산이나 분배가 ‘수요에 얼마나 부응하느냐’가 아니라 “이들 수요가 윤리적 표준에 얼마나 부응하느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Knight, 1923, p. 598). 이는 가격에 의한 가치평가는 윤리적 의미를 띠지 못하며, 가치평가 과정을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아닌 별개의 준거가 되는 표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트는 “성취의 수량”은 윤리적 표준이 될 수 없다는 전제 위에 철학사 속에서 윤리적 표준의 가능성을 탐색한다(Knight, 1923, p. 617). 그가 첫 번째로 거론하는 것은 ‘쾌락주의’ 전통인데, 그들의 윤리적 표준은 “삶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9) 이때 나이트는 “예술가에게 구두담는 일을 시키고 구두담는 일만큼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시스템에 대한 비난은 예술가에게 예술을 행하게 하고 구두담는 만큼의 보상만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한 비난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고 주장한다(Knight, 1923, p. 597). 전자는 경쟁적 경제시스템, 후자는 계획에 입각한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Knight, 1923, p. 617). 그들이 중시하는 “쾌락에는 물질적 만족보다는 영적 자원의 풍부함, 삶에서 비용이 들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감사의 기쁨, 특히 동료들에 대한 애정”이 포함된다(Knight, 1923, p. 619).

다음으로는 그리스 윤리학에 기반한 ‘행복주의’ 전통이 거론되는데, 그들이 추구한 윤리적 이상, 곧 윤리적 표준은 “아름다움”과 “완전함” 또는 “완전함의 달성”이다(Knight, 1923, p. 621). 나이트에 따르면, “그리스 윤리학의 특징은 좋음을 객관적인 것으로 그리고 도덕적 판단으로 바라보는 것”이다(Knight, 1923, p. 619). 이 입장에서는, 어떤 일은 그것이 만족이나 이익을 주어서 또는 “타인에 의해 행해지거나 행해지지 않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다”(Knight, 1923, p. 619). “그리스 윤리학의 지성사적 특징은 진정한 가치와 거짓 가치를 구별할 역량을 강조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역량은 변화를 예측하고 수단을 목적에 맞게 적응시켜가는 능력과는 상이하며”, “진정한 가치에 관한 올바른 인식이나 완미(玩味)를 추구한다”(Knight, 1923, p. 620).

나이트는 기독교 윤리학에서도 ‘윤리적 표준’을 찾아내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은 “영성”(spirituality)이다(Knight, 1923, p. 621). “기독교 윤리의 이상도 그리스 윤리의 이상과 마찬가지로 자연과학 및 정치경제학에서 도출된 근대의 이상과는 아주 대조적”인데, 그 핵심은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모든 윤리적 판단이 그 효율성, 즉 달성된 결과의 수량이 아니라, 그 결과의 성격이나 그 행동을 낳은 동기의 성격에 근거해야 한다”는 인식이다(Knight, 1923, pp. 620-621). 그리스 철학자들이 “결과의 성격에 주목하고 윤리적 가치의 심미적 개념을 제시”했다면, 기독교에서는 행위의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영성에서 이상적인 삶”을 찾으려 했다(Knight, 1923, p. 621). 나이트에 따르면,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면, 영성을 양적 단위로 논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인데, 이는 “이들 두 윤리에서 이상의 성격이 질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Knight, 1923, p. 621).

(4) 경쟁적 시스템의 정당성에 대한 윤리적 비판

나이트에 따르면, 근대는 사람들의 경제활동, 특히 생산 관련 활동이 경쟁심에 기반한 시대이며, 이 점에서 근대의 경제질서를 경쟁적 경제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사람들이 “스포츠나 다른 게임을 할 때와 동일한 동기를 가지고”, ‘사

업'(business)라는 경쟁적 게임에 참여한다면, 이러한 사업을 윤리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경쟁을 사업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해명한다(Knight, 1923, p. 586). 이때, 나이트가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경쟁적 경제질서가 거름과 경쟁심(emulation and rivalry)을 서양인들의 주요한 특성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Knight, 1923, pp. 586-7). 나이트에 따르면, “특히 미국에서는 경쟁적 사업이 최고도로 발달했고 인생 자체를 스포츠경기로 바라보는 관점도 가장 널리 퍼져있다”(Knight, 1923, pp. 612-613).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 종류의 덕목이 출현하는데, “더 큰 덕목은 승리하는 것”으로, “이기기만 한다면, 그 방법은 상세하게 문제삼지 않는다”(Knight, 1923, p. 613). 그 뒤를 잇는 “다음 덕목은 게임에서 패배한 후 위엄을 잃지 않고 퇴장하는 것이다”(Knight, 1923, p. 613).

나이트는 앞에서 탐색한 윤리적 표준들에 근거해 “경쟁의 윤리”를 숙고하는데, 이는 논문의 제목이기도 하다. 그는 우선 ‘쾌락주의’ 관점에서 경쟁의 윤리에 관해 판단한다. 그는 “경쟁적 동기에 대한 호소가 활동에 관심을 갖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사업을 이끄는 “리더들에게는 매혹적인 스포츠가 되지만, 이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고역을 떠넘긴 결과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한다(Knight, 1923, p. 613). 따라서, 그는 “쾌락의 관점에서 보자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치명적인 경쟁에 끊임없이 내몰리기보다는 내재적으로 가치가 있어 보이는 목적들과 관련이 있고 덜 경쟁적인 분위기의 활동을 선호할 것”이라고 평가한다(Knight, 1923, pp. 613-4). 많은 이들이 “경쟁이 제거된 목가적 세상의 그림”을 그리거나 “길드나 중세적 기구로 회귀하려는 운동”을 벌이는 것도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Knight, 1923, pp. 613-4).

나이트는 ‘행복주의’ 관점에서의 ‘경쟁의 윤리’를 토대로 “무엇을 위한 경쟁인가”의 문제에 주목한다(Knight, 1923, p. 614). 그에 의하면, “경쟁심은 물질적 사안이나 사소한 것들을 해결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고상한 목적과 관련한 “더 높은” 애씀의 영역에서도 그렇게 효과적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나이트는 이러한 논의에 근거해, “결과의 성격이나 관심의 성격”을 따진다면, “경쟁적 기초 위에 삶을 조직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견해를 개진한다(Knight, 1923, p. 614). 나이트는 우선, ‘결과의 성격’과 관련해 “경쟁이 특히 승자나 게임에서 승리할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쾌락의 추가적 원천이 되겠지만”, “경쟁에의 참여가 강제되는” 사람들에게는 “괴

롭힘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 주목한다(Knight, 1923, pp.618-619). 이는 ‘최대다수의 행복’이나 “바람직한 결과의 최대 수량 달성”을 주창하는 “공리주의”와 “힘의 윤리”에서는 정당화될지라도 “옳고 그름”을 중시하는 “도덕의 본성”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Knight, 1923, pp.617, 615). 나이트는 다음으로, ‘관심의 성격’과 관련해, 경쟁이 고차원적인 욕구의 충족, 곧 행복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주목한다. 행복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영적 자원의 풍부함, 삶에서 비용이 들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감사의 기쁨, 특히 동료들에 대한 애정” 등인데, 경쟁은 이러한 것들을 고양하기보다는 훼손한다는 것이다(Knight, 1923, p.619). “협동은 서로를 좋아하도록 훈육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경쟁 속에서는 삶의 수단 또는 제대로 된 삶의 수단이 위태롭게 느껴진다”는 점도 언급된다(Knight, 1923, p.619).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옹호하고 시장경제의 순기능에 주목하는 경제학자인 나이트가 이러한 점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자유방임 개인주의에 기반한 경쟁적 경제시스템에 대해 내리는 ‘평결’은 부정적이다. “자유방임 개인주의에 기반한 경쟁적 경제시스템의 ‘현실’이 그 ‘이상’에 현저하게 미달하고, 자원의 생산적 이용을 이끄는 지침을 제공할 가치 표준으로서의 가격은 윤리적 가치와 큰 괴리를 보인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Knight, 1923, p.600). 이는 동시에 자유방임 개인주의 경제시스템을 옹호하는 당대의 신고전학과 경제학에 대한 평가의 의미도 지닌다. 나이트에 따르면, “정통경제이론”은 “이상적인 표준과의 비교”를 통해 경쟁적 시스템을 판단하고 평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실제 욕망들”을 표준으로 삼아 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오류를 범했다(Knight, 1923, pp.623, 623, 583). 이때, 정통경제이론이 실제 욕망들을 표준으로 삼았던 것은, “경쟁이 욕망들 사이의 비교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 욕망을 그 규모의 순서에 따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회의 자원을 조직하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Knight, 1923, p.583). 나이트는 이러한 ‘경향’이 당대의 경쟁적 경제시스템에서 실제로 관철되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하는데, 경쟁적 경제시스템에는 그러한 관철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옹호자들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결과로는 이어지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때, 나이트는 경쟁적 경제시스템이 이상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해 12가지의 논점을 검토한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개인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타인의 행동이나 시스템에 영향을 받는다는 존재라는 점,¹⁰⁾ 사람들이 이

상적이지 않은 욕구를 원하도록 시스템이 힘을 발휘한다는 점,¹¹⁾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완전하지 않다는 점, 자유방임 상태에서는 독점을 향한 반대경향이 발생한다는 점, 합리적인 사회적 질서는 모든 개인들이 리스크와 운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행동할 때 성립 가능한데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인간은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게 마련이고 그로 인해 개인의 자유를 사회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 경쟁적 경제시스템에서의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은 수요에는 훌륭하게 부응하지만 윤리적 이상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¹²⁾ 등이 거론된다(Knight, 1923, pp. 590-596).

나이트는 이러한 판단과 분석을 근거로 “경쟁을 이상적인 유형의 인간관계를 위한 기초나 행동의 동기로서 승인할 수 있는 윤리적 근거를 찾는 것은 헛된 것으로 보이며”, 경쟁은 또한 “사회를 우애의 공동체로 꿈꾸는 그리스 전통의 이상이나 사회를 영적인 동료의식으로 채우려는 기독교의 이상과 조화를 이루는 데도 실패”했다고 평결을 내린다(Knight, 1923, p. 622). 그에 따르면, “경쟁 윤리의 유일한 정당화는 그것이 일을 성사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무슨 일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을 떠올려본다면, 여러 바람직한 것들이 누락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경쟁의 미학적 이상 또한 전통적인 윤리학의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Knight, 1923, p. 622).

10) 이는 “자유로운 개인 자체가 경제시스템과 문화적 환경의 일부”라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개인을 둘러싼 이러한 요인들이 필요와 욕구를 형성하고 경제적 능력도 부여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면, “인간은 욕구충족의 완벽한 기구로서의 합리적 개인도, 계산기계도 아님”이 분명해진다(Knight, 1923, p. 590).

11) 나이트는 영리기업의 사업 활동이 사람들의 욕구를 변화시키는데, 좋은 종류의 욕구 형성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인간의 본성을 개선하기보다는 타락시키고 경우가 많다고 평가한다(Knight, 1923, p. 593). 그로 인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윤리적 가치와의 괴리를 키우게 되는데, “가격과 윤리적 가치 사이의 이러한 괴리는 기존 질서가 경쟁적일수록 더 커진다”고 한다(Knight, 1923, p. 601).

12) 이 점이 바로 샌델이 나이트를 인용했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경쟁적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 측면에서는 훌륭할지라도, 윤리 측면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인식은 다음의 문장을 통해 잘 확인된다. “어느 누구도 한 병의 오래된 포도주가 한 푸대의 밀가루와 같은 윤리적 가치를 지닌다거나 귀부인의 옷 한 벌이 가난한 사람의 집 한 채와 동일한 윤리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치평가의 전체 과정은 윤리적 차원에서는 문자 그대로 악순환이다. 가격은 수요에서 나오고, 수요는 다시 가격에서 나오기 때문이다(Knight, 1923, p. 598).”

(5) 공리주의 또는 심리적 쾌락주의 비판

1923년 논문에서 주목할 만한 마지막 논점으로는 ‘공리주의’(utilitarianism)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들 수 있다. 나이트가 보기에 경쟁적 경제시스템이 높은 수준의 ‘이상’에 미달되는 결과를 낳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이 시스템이 다른 전통에 비해 함량이 떨어지는 윤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공리주의 또는 ‘심리적 쾌락주의’(psychological hedonism)이다. 그에 따르면, 19세기의 쾌락주의자들은 인간 행동을 형식적 규칙의 부합 여부는 따지지 않고 그 결과로만 판단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쾌락주의자가 아니라 진짜 공리주의자이다. 이때, 공리주의는 “바람직한 결과의 최대 수량 달성을 이상”으로 상정하고, “덕성(virtue)을 신중(prudence)으로 축소하는” 교의이다(Knight, 1923, p. 617). 나이트에 따르면, 공리주의는 “지식을 힘의 도구이자 힘 그 자체로 바라보는 자연주의적·실용주의적 지식 개념을 표방”하는데, “힘을 사용하는 목적에 관한 의미있는 설명이 없고, 욕망(desire)을 가치의 본질로서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을 뿐”이다(Knight, 1923, pp. 618-619). 그가 19세기의 공리주의를 “힘의 윤리학과 ‘체제미화의 경제학’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Knight, 1923, p. 617).

1923년 논문에서 19세기 공리주의의 대표자로 거론된 학자는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이다. 나이트에 따르면, 스펜서는 “모든 생명체가 생물학적 의미에서 좋은 것을 ‘반드시’ 원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욕망을 궁극적인 것으로 정당화”시킨다(Knight, 1923, p. 618). 그리고 “생존의 힘이야말로 모든 집단들에 있어 올바른 최후적인 척도로 상정”한다(Knight, 1923, p. 618). 나이트는 이러한 적자생존 등의 개념에 ‘윤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데, 생존은 생물학의 법칙일 뿐 윤리와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상이한 종류의 삶 사이에 놓인 선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윤리”라는 점에서, “생존의 조건에 따른 행동은 권리나 의무와 같이 진정으로 윤리적인 개념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Knight, 1923, p. 618).

3. 나이트의 베블런 비판

나이트는 정통파 신고전학과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대표적

인 비판자였던 베블런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작업을 본격적으로 벌이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비판적 관심을 평생 동안 견지했다.¹³⁾ 나이트는 베블런을 전미경제학회 회장으로 추천하기도 했지만, 비판적 관점은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었다¹⁴⁾. 나이트는 베블런이 1929년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경제학 방법론, 사업과 산업의 구분, 가치의 문제, 자본과 이윤의 원천, 불확실성과 리스크의 중요성, 자유무역이 전쟁과 평화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주제와 관련해 그에 관한 논의를 펼쳤다. 나이트가 1923년 논문에서 베블런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세 차례이다. 이때, 베블런은 자유방임 경쟁적 경제시스템에 대한 비판의식이 지나쳤던 반면, ‘가치’의 문제의식을 결여했고, 올바른 종류의 욕구와 그렇지 않은 욕구를 구분하지 못한 가운데 ‘욕구의 다양성’을 경시했으며, 윤리를 생물학으로 환원하는 19세기 공리주의 전통에 속한 대표적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베블런에 관한 이러한 언급은 비판 자체의 타당성보다는 바람직한 경제학에 관한 나이트의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1) 잘못된 효율 개념에 입각한 경쟁적 경제질서 비판

나이트는 베블런을 ‘금전적’ 고용과 ‘산업적’ 고용의 차이에 주목하며, 경쟁적 경제시스템을 비판한 대표적 인물이라고 규정한다. 이때, 비판의 핵심은 사회적으로 낭비와 갈등만을 가져오는 ‘금전적’(pecuniary) 고용의 원리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산업적’(industrial) 고용의 원리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나이트는 특히 “사회는 ‘금융

13) 그리고 나이트(Frank H. Knight, 1885-1972)의 베블런 비판은 제도경제학에 대한 비판의 의미도 지닌다. 제도경제학은 베블런(Thorstein B. Veblen, 1857-1929), 존 커먼스(John R. Commons, 1862-1945), 웨슬리 미첼(Wesley C. Mitchell, 1874-1948), 존 모리스 클라크(John Maurice Clark, 1884-1963) 등의 연구를 토대 삼아 경제적 삶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신고전학과는 상이한 발전경로를 지향했다. 제2세대 제도경제학의 대표자는 베블런의 산업적 활동과 금전적 활동의 이분법과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의 도구주의를 종합해 ‘도구주의 가치론’을 발전시킨 클레런스 에어즈(Clarence Ayres, 1891-1972)이다(Tilman, 1992; Klein, 1993; Gordon and Adams, 1989; 한성안, 2020).

14) 베블런과 나이트의 지적 관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Tilman(1992)을 볼 것. 나이트의 베블런 비판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 책 〈쏜스타인 베블런과 그의 비판자들, 1891-1963: 보수주의, 자유주의, 급진적 관점〉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가'(financiers)로부터 통제권을 빼앗아 '기술자'(technicians)의 수중으로 그 통제권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에 주목하는데,¹⁵⁾ 이러한 주장에는 다음의 명제들이 함축되어 있다(Knight, 1923, p. 582). "사회는 '더 많은 재화의 생산'과 '더 많은 가치의 생산' 사이에서 선택을 한다"는 명제와, "더 많은 가치보다는 더 많은 재화의 생산이 바람직하다"는 명제가 그것이다(Knight, 1923, p. 582). 나이트가 베블런의 주장을 이렇게 요약한 것은, '기술자'는 더 많은 재화의 생산을 추구하고, '금융가'나 '사업가'(businessman)는 더 많은 가치의 생산을 추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이트는 여기에 "재화의 수량은 물량 단위가 아니라 가치 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며, 경제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핵심이 바로 사회적 자원의 관리를 다루는 '가치문제'임을 강조한다(Knight, 1923, p. 582).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나이트는 베블런의 주장이 '가치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얼마나 많은 생산력을 각 영역에 투입할지에 관한 결정을 각 영역의 기술자들에게 넘기자는 제안은 터무니없다. 군사 전문가는 육군과 해군에 모두 사용하자고 주장할 것이고, 의료 전문가는 의료분야에 모두 사용하자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Knight, 1923, p. 582). 나이트에 따르면, 이러한 자원배분의 문제들은, '기술적 효율'의 문제가 아니므로, 가격을 매개로 '사업가'나 '금융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가격 시스템과 시장 메커니즘뿐이며, 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사업가와 금융가이기 때문이다. 나이트의 논증체계에서는, 기술자는 효율의 상징이고, 베블런의 경우 효율의 상징인 기술자를 중시하므로, 베블런은 결국 욕구의 효율적 충족에만 관심이 있고, 충족시켜야 할 욕구의 종류에는 무관심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진다.

베블런이 충족시켜야 할 욕구의 종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판단은 경쟁적 경제시스템에 대한 베블런 비판 자체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다. 나이트에 따르면, "사회적 과정이나 사회적 결과에 대한 비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가치의 척도'에 더해 '가치의 이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Knight, 1923, p. 582). 베블런의 경우, 경쟁적 경제시스템을 기계적 효율의 표준으로만 비판하는 데 머무른 채 이 시스템이 지향하는 윤리적 이상 또는 윤리적 표준과의 대비 속에서 분석·판단하는 상태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크다는 것이 나이트의 판단인 것이다.

15) 이때, 나이트가 비판 대상으로 삼는 것은 1919년에 발간된 <기득권과 산업기술의 상태>(The Vested Interest and the State of the Industrial Arts)이다.

(2) 고차원 욕구들의 중요성을 간과한 경쟁적 경제질서 비판

이 문제와 관련해 나이트는 베블런이 “〈유한계급론〉에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높은 수준의’ 욕구들을 날카롭게 풍자”하거나 그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들어내는 영리기업의 활동들을 진지한 검토 없이 비난한” 것을 특히 문제 삼는다(Knight, 1923, p. 593). 나이트에 따르면, 이러한 비난은 심각한 오류인데, 왜냐하면 “영리적 사업활동에 의한 욕구 창출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창출되는 욕구의 성격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Knight, 1923, p. 593). “광고나 판매기술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우리의 교육, 보다 일반적으로는 문명 전체를 비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을 짐승과 구별짓는 대부분의 욕망은 인위적으로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리적으로 보자면, 올바른 욕구의 창출은 욕구의 충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Knight, 1923, p. 593).

이때, 나이트가 경쟁적 경제질서가 올바른 종류의 욕구, 곧 고차원 욕구들의 창출에 실제로 기여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베블런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서도 확인한 것처럼, 나이트는 영리기업의 사업적 활동이 올바른 종류의 욕구 창출을 가져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영리기업 활동에 대한 베블런의 조롱 위주의 부정적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영리기업의 사업적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베블런과의 거리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나이트는 1922년에 발표한 “경쟁과 경제적 해석”이라는 논문에서는 베블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 논문에서는 나이트는 욕구(wants)를 주어진 데이터로 취급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이 베블런이나 클라크(John Maurice Clark)로 대표되는 ‘제도경제학’에 의해 이미 제기된 바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때, 그는 제도경제학자들이 욕구를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매진하게끔 추동하는 원천인 동시에 사업적 활동에 의해 변화하는 것으로 포착하고 있다며, 이들의 접근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사업적 활동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욕구를 ‘악’으로 간주하는 경향도 관찰된다고 하며, 이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유지한다(Knight, 1922, p. 457).

(3) 19세기 공리주의 전통의 한계

나이트가 베블런의 이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데는 그를 스펜서의 제자이자

19세기의 공리주의의 일원으로 보았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는 19세기 공리주의가 욕망을 가치의 본질이라고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생존을 올바른의 최종적인 척도로 상정하는데, 베블런도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한다(Knight, 1923, p. 618). 이때, 나이트는 19세기 공리주의 전통의 경우, 이러한 이론적 전제로 인해 윤리를 생물학으로 대체한 가운데, 생존을 위한 행위나 선택에 매몰된 채, 인간과 사회가 상이한 종류의 삶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한다(Knight, 1923, p. 618).

나이트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1925년에 발표된 “경제적 심리와 가치 문제”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베블런의 이름을 거론하며, 경제학에 생물학적 요인이나 입증불가능한 형이상학적 요소들을 무비판적으로 들여오는 흐름을 비판한다. 그는 동기(motive)와 필요(need)를 동일시하거나 인간의 현실적인 욕구(wants)를 생물학적 요인으로 환원하는 것은 오류라며, 욕구가 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낮은 차원의 욕구인 의식주 관련 욕구 또한 생물학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심미적인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모든 욕구는 문화적 규범에 의해 판단되고 문화적 범주들을 통해 이해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Knight, 1925, p. 400).

Ⅲ. 쏘스타인 베블런: ‘불쾌한 비교’에서 ‘삶의 일반적 목적’으로

나이트는 경제학이 ‘경제주체들의 효과적인 욕구충족 수단을 찾는 효율의 문제’와 ‘경제주체들의 올바른 욕구창출 메커니즘을 해명하는 윤리의 문제’를 함께 포괄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베블런은 효율의 문제와 윤리의 문제 양쪽 모두에서 문제점을 보였다. 베블런의 경우, 적자생존 등의 생물학적 논리에 집착해 경제학의 관심을 윤리가 제외된 효율의 문제로 축소했으며, 가격에 대한 과도한 거부감으로 인해 효율의 문제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나이트에 따르면, 전자의 문제점은 베블런이 ‘살아남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는 ‘사회진화론’ 전통의 계승자라는 점과 관련이 있으며, 후자의 문제점은 베블런이 ‘어떤 선택이나 행동은 그로 인해 달성된 결과의 수량에 의해 판단되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공리주의’ 전통의 대표자라는 점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보자면, 베블런은 특정 “욕구의 성격”이나 선택에 따른 “달성된 결과의 성격”에 대한 엄밀한 검토 없이 “달성된 결과의 수량”에만 근거해 경쟁적 경제시스템을 잘못 비판한 흐름을 대표하는 인물인 것이

다(Knight, 1923, pp. 593, 620, 620).

그런데 이러한 비판은 베블런의 실제 주장, 특히 그의 대표작인 <유한계급론> 그리고 <장인본능과 산업기술의 상태>에서의 실제 논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베블런이 찰스 다윈(Charles Darwin)과 스펜서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인간의 생존 및 삶의 지속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살아남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적자생존의 원리를 사회에 도입하고, 그 원리를 정당화했다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그는 스펜서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사회진화론이나 생물학적 결정론을 주장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쓴 <유한계급론>에는 “상이한 종류의 삶 사이에 놓인 선택의 문제”(Knight 1923, p. 618)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점에서 베블런은 나이트가 말한 의미에서의 윤리를 중시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베블런이 어떤 선택이나 행동을 그로 인해 달성된 결과의 수량에 의해 판단하고 평가하려 했다는 평가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가 효율의 측면에서 “달성된 결과의 수량”(Knight 1923, p. 620)을 중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의 성격이나 그러한 행동을 낳은 동기의 성격”(Knight 1923, p. 621)에는 더 많은 관심을 할애하기 때문이다. 베블런은 나이트가 중시한 ‘올바른 종류의 욕구’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의를 펼쳤고, 효율과 윤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을 시도했다. 이제 <유한계급론> 그리고 <장인본능과 산업기술의 상태>를 중심으로 베블런이 이들 논점과 관련해 실제로 어떤 주장을 펼쳤으며, 그것이 나이트의 문제의식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확인해 보자.

1. ‘부적자생존’과 ‘장인본능’

(1) 사회구조의 진화와 부적자생존

베블런은 다윈의 진화이론을 인간 사회의 역사에 적용하는 데 관심이 컸고, 생존과 삶의 지속을 강조했다. 하지만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에 동조해 ‘살아남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고, 환경에 순응한 존재가 그렇지 못한 존재를 지배하거나 착취하는 현상을 정당화하지도 않았다. 베블런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학자는 다윈으로, <유한계급론>은 다윈의 이론을 사회 영역에 적용해 사회구조의 진

화를 해명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윈 이론의 핵심 요소들은 변이, 생존을 위한 투쟁, 자연선택 등인데, 베블런은 이를 인간 사회의 역사에 적용한다. 그에 의하면, “생존을 위한 투쟁은 선택적 적응과정”이고, “사회구조의 진화는 제도들의 자연선택과정”이다(Veblen, 1899, p. 125). 제도는 그 자체가 “선택적·적응적 과정의 귀결인데, 지배적 유형의 정신적 태도를 형성하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속에서 변이의 과정을 밟는다”는 것이다(Veblen, 1899, p. 126).

베블런 연구자인 스티븐 에절(Stephen Edgell)에 따르면, 베블런은 라마르크의 생물학적 진화론이나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에 비판적이었다. 그는 사회적 개인에게 목적이 중요하다는 견해에는 동의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불변이라거나 인간사에는 모종의 경향이 관철된다는 인식에는 반대했다(Edgell, 2015, pp. 68-73). 실제로 〈유한계급론〉에서는 사회변화와 관련해 스펜서의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과는 상이한 관점이 제시된다. 베블런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습성도 상황이 변화를 강요하지 않는 한,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다”(Veblen, 1899, p. 127). 이는 전승된 제도 그리고 그것들과 결부된 사고습성이 진보를 가로막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는데, 사회진화론과는 상반된 관점이다. 베블런은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옳은 것’이라는 자연선택이론이나 사회진화론에 명시적으로 반대한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옳은 것”이라는 자연선택의 법칙을 인간제도에 적용하면,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잘못된 것’이라는 공리(公理)를 얻게 된다”(Veblen, 1899, p. 137). 이때, 낡은 속성의 생존, 곧 ‘부적자생존’(survival of the unfittest)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 핵심은 인간에게 고유한 ‘집단고려 본능’을 위축시키고 ‘자기고려 본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공동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나이트의 비판과 달리, 베블런의 이러한 인식 속에는 모종의 윤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그의 고유한 본능 개념, 특히 장인본능과 약탈본능의 개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 인간의 본능과 장인본능

베블런은 유전적으로 전승되는 인간의 본유적 능력인 ‘본능’(instinct)에 주목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목표를 제공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게끔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본능이라고 보았다. 베블런에 의하면, 이러한 본능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습

관·관습·문화·제도에 제약되고 안내받으며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 인간의 생존 및 진화의 구체적 양상이 달라진다. 베블런의 계승자들에 따르면, 그가 주목한 본능은 크게 집단의 생존이나 번영에 도움을 주려는 집단고려 본능들(group-regarding instincts)과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기고려 본능들(self-regarding instinct)로 양분된다. 전자에는 부모본능, 한가로운 호기심 본능, 장인본능이 있고, 후자에는 자기보존본능, 자기확대본능, 약탈본능이 있다(Veblen, 1914; McCormick, 2006, ch. 1; Edgell, 2015, pp. 78-81; 한성안, 2020, pp. 70-92).

여러 본능들 중 베블런이 가장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본능은 ‘장인본능’(instinct of workmanship)이다. 이 본능은 유용성과 효율성을 애호하고 낭비와 무능을 혐오하는 감정이자 집단의 삶을 확장하려는 의지로 요약될 수 있다(Veblen, 1899, pp. 16, 64).¹⁶⁾ 한편 1914년에 출간된 <장인본능과 산업기술의 상태>에는 장인본능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가 있다. 장인본능은 “실용적 방편, 수단과 방법, 효율성과 검약을 위한 장비 및 발명품, 역량, 창의적 작업과 기술적 숙달에 관심을 집중하려는” 성향이다(Veblen, 1914, p. 33). 장인본능은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며 애써 노력하려는 성향과 관련”되며,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일들을 처리하고 예상만큼 잘 해내는 성향”이기도 하다(Veblen, 1914, pp. 33, 34). 장인정신은 인류가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 문명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발휘했다. 이 상태에서 인간은 장인정신에 힘입어 “수중의 물질적 수단을 최대한 개인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사용”하고 “지식과 물질의 모든 자원을 집단의 삶을 유지하는 데 투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Veblen, 1914, pp. 36, 37). 장인본능은 유전에 의해 전승된다는 점에서 생물학적 성격을 띠지만, 관습과 제도 그리고 문화에도 크게 영향받는다는 점에서는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자신의 소질을 한껏 발휘하며 공동선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윤리적 특성도 띤다고 할 수 있다.¹⁷⁾

16) 본능이란 유전적으로 보존·계승된 인간의 본유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장인정신을 본능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일에 임할때 이성적인 계산이나 가치판단 없이 자동적으로 장인처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Gordon and Adams, 1989).

17) 이는 본능과 윤리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를 검토하며, 진화생물학의 관점에서 윤리의 문제를 해명하는 Christakis (2019)의 논의와 유사성이 있다.

2. ‘효율’의 개념과 ‘불쾌한 비교’: 근대 산업사회의 윤리적 비판

이제, 베블런의 경우, 우리는 고려하지 않고 효율에만 집착했는지, 경쟁적 경제 시스템을 비판할 때 “달성된 결과의 수량”에만 주목하고 “선택에 따른 결과의 성격”이나 특정 욕구의 성격”에 대해서는 외면했는지를 살펴보자. 나이트의 주장처럼, 베블런이 “달성된 결과의 수량”을 중시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는 효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가 효율을 중시했다는 평가는 타당하다. 그는 삶의 지속과 집단의 재생산을 가장 긴급하고 우선적인 목적으로 상정했는데,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효율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1) 베블런의 ‘효율’ 개념

베블런의 체계에서 ‘효율’은 장인본능의 발휘와 직결된다. 장인본능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산적 효율과 인간에게 유용한 것들을 애호하게 만들고, 자원이나 노력의 낭비를 혐오하도록” 만든다(Veblen, 1899, p. 64). 이때 베블런에게 효율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목적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출 경우, 효율은 어떤 주어진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때의 효율은 ‘목적에 위한 수단의 원리’이자 “모종의 유용한 객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간 고유의 규범”이다(Veblen, 1899, p. 169). 이때의 효율은 주어진 목적을 훌륭하게 잘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도구적 효율’이라고 할 수 있다. <장인정신과 산업기술의 상태>를 보면, 베블런의 핵심 개념인 장인본능 또한 ‘목적의 능숙한 달성’과 관련이 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장인본능의 기능은 삶의 목적을 달성할 유용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거나, 장인본능은 “그 어떤 이면의 목표나 궁극적인 목적보다는 삶의 수단이나 방법과 관련이 더 있다”는 대목이 대표적이다(Veblen, 1914, p. 31).

다음으로, 효율은 ‘유용성의 증대’와 ‘낭비의 감소’ 그 자체로 정의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는, 어떤 활동이 유용성을 줄이거나 낭비를 늘리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 활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비효율적이고, 장인본능에 위배되며, 세상에 해로운 행동으로 규정될 것이다. 이때의 ‘효율’은, 그 유용성이 개인의 주관적 효용이나 선호를 뛰어넘어 집단이나 공동체의 후생 증대로 연결된다면, 그 자체가 ‘윤리’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에 맞춰진 ‘도구적 효율’의 경우에도 윤리와 무관하지 않은데, 다만 이때 윤리와의 연결은 수단이나 도구가 섬기려는 목적과의 관련 속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행해진다. 어떠한 목적과 결합되는가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효율이 가능하며, 각각의 효율은 그 목적의 올바름이나 바람직함에 관한 가치판단 속에서 윤리적 성격을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 유용성과 공동선의 달성이라는 목적과의 연관 속에서 수행되는 효율의 사유는 나이트가 강조한 ‘사회적 효율’이나 윤리의 발상과 다르지 크게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집단고려 목적의 활동과 높은 차원의 유용성

인간의 삶에서 목적은 다양하다. 베블런의 체계에서는 ‘집단고려 본능’과 ‘자기고려 본능’의 대비에 따라, 인간의 활동을 크게 ‘집단고려 목적’의 활동과 ‘자기고려 목적’의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공동체 전반의 물질적 삶의 유지 및 개선 등의 목적과 관계되는 활동들로, 경제적·산업적·생산적·기술적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후자는 자기보존, 자기과시, 타인의 몫 탈취 등의 목적과 관계되는 활동들로, 약탈적·경쟁적·과시적·금전적 활동이 포함된다. 〈유한계급론〉에는 ‘효율’이 다양한 용어들과 결합해서 사용되는데, 집단고려 활동과 관련해서는 산업적 효율(18회), 경제적 효율(6회), 생산적 효율(4회), 장인적 효율, 기계적 효율, 공동체의 효율, 불쾌하지 않은 활동을 위한 조직의 효율, 집단적인 경제적 삶의 가장 완벽한 효율과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산업적·경제적·생산적 목적과 관련해 유용성을 늘리고 낭비를 줄이는 상황이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적을 한층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나 도구를 확보하고 사용하는 긍정적 상황을 지칭한다.

〈유한계급론〉과 〈장인본능과 산업기술의 상태〉에는 나이트가 강조한 ‘높은 차원의 욕구’와 유사한 주장이 등장한다. 베블런에 따르면, 경제이론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상인 소비는 “소비자의 물질적 욕구, 즉 물질적 안락을 만족시키고 나아가 보다 높은 차원의 욕구, 즉 정신적·심미적·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도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Veblen, 1899, p. 22). 다만, 높은 차원의 욕구는 정신적·심미적·지적 욕구 그 자체와 관련된 소비나 여가 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방식에 의해서도 채워질 수 있지만, 과시적 소비와 같이 “유행에 따라 행해지는 지출을 통해”

타인의 인정을 받는 “간접적인 방식에 의해서도 채워질 수 있다”(Veblen, 1899, p. 22). 이때 타인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얻는 정신적 욕구의 충족은 물질적 욕구의 충족보다 더 강하게 선호된다. “사회의 어느 계급도, 심지어 극빈층도, 관습화된 과시적 소비를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 어떤 계급이나 국가도 물질적 욕구에 비굴하게 굴복함으로써 이처럼 고상한 욕구나 정신적인 필요가 주는 모든 희열을 스스로 단념하지는 않는다”(Veblen, 1899, p. 59).

높은 차원의 욕구가 채워지는 보다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의 사례로는 장인정신의 표출이 있다. 베블런에 따르면, “장인정신은 그 자체가 관심과 감정의 대상이 된다. 수단의 효율적 사용과 삶의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적절한 운용은 그 자체가 노력을 기울일만한 목표이며, 이러한 종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희열의 원천이 된다”(Veblen, 1914, pp. 31-32). “보통 사람들은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즐거움 속에서 삶과 안녕의 향상을 발견할 수 있을 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Veblen, 1899, p. 67). 이는 나이트가 강조한 높은 ‘윤리적 이상’에 부합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3) ‘불쾌한 비교’와 금전적 가치평가 규범의 지배

〈유한계급론〉에는 타자의 것을 손쉽게 빼앗게 해주는 약탈적 효율(predatory efficiency),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금전적 효율(pecuniary efficiency), 타인과의 경쟁에서 앞서나가도록 돕는 경쟁적 효율(emulative efficiency)과 같이 사회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낳는 효율도 등장한다. 이때, 부정적인 효율과 관련해 ‘낭비’와 ‘불쾌한 비교’(invidious comparison)라는 베블런 고유의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블런의 체계에서는 장인본능이 특정한 환경 속에서 ‘경쟁심’(emulation)과 결합하게 되고, 소비의 목적 또한 물리적 필요나 욕구의 충족에서 사회적·과시적 욕구의 충족으로 확장되면, 과시적 소비나 낭비적 지출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된다. “사람들을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비교하고 차별하는 공동체에서는, 가시적인 성공이 그 자체로 중요한 목적이 되고 존경의 기반도 이루는데”, 그로 인해 “장인본능은 결국 힘을 과시하려는 경쟁심과 연결된다”(Veblen, 1899, p. 16). 이 과정에서 소비의 목적에 좋은 평판이 추가되고, 낭비를 통해 자신의 평판을 높이려는 새로운 종류의

경제행위, 곧 “과시적 여가 및 소비”(conspicuous leisure and consumption)와 “낭비적 지출”이 등장한다(Veblen, 1899, pp. 51-2).¹⁸⁾ 앞에서, 나이트가 경제적 욕구의 성격이나 경제적 행위의 동기에 대한 윤리적 가치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을 확인했는데, 베블런의 이 개념들은 경제적 분석에 기초한, 욕구나 동기에 관한 윤리적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한계급론〉에서는 ‘낭비’와 함께 ‘불쾌한 비교’ 또는 ‘불쾌한 구별’(invidious distinction)이라는 개념이 강조된다. 베블런에 따르면, “재화는 인간의 삶을 보다 충만하게 전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산되고 소비”되는데, 이때 “재화의 일차적 효용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효율에 있다”(Veblen, 1899, p. 103). 하지만 “인간의 경쟁심으로 인해 재화의 소비는 불쾌한 비교를 위한 수단이 되었고, 소비재는 상대적 지불능력을 과시한다는 이차적 효용을 부여받게” 되었다(Veblen, 1899, p. 103). 이때, ‘불쾌한 비교’란 “사람들을 상대적 중요성이나 가치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서열을 매기며 서로 비교함으로써 불쾌감과 경쟁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뜻한다(Veblen, 1899, p. 27). 베블런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치는 사물이나 행위를 평가할 때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사람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경쟁심을 유발하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불쾌한 비교’나 ‘불쾌한 구별’은 결국 ‘과시적 소비’와 ‘금전적 추구’로 이어지는데, 사람들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고려된 삶의 포괄적 목적에 전념하지 못한 가운데, 이와는 무관한 낭비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귀중한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게 된다”(Tilman, 1992, p. 209).

‘불쾌한 비교’는, ‘과시적 소비’와 ‘낭비적 지출’의 근본적 원인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경쟁적 자본주의에 대한 베블런 비판의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Veblen 1899, p. 69). 베블런에 따르면, “인간의 자기보존 본능을 제외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경제적 동기들 중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동기가 경쟁심을 발휘하려는 성향”으로, 산업사회에서 이러한 경쟁성향은 금전적인 재력과 시 경쟁으로 표출된다(Veblen, 1899, p. 75). 이 과정에서는 자원의 낭비가 불가피한데, 그로 인해 “공동체의 산업적 효율이나 산출량의 추가적인 증대를 방해하는 경향이 발생”하며, “사회적 산업적 효율이 저하되고, 인간 본성은 근대 산업적 삶의 긴급한 요구에 적응하

18) 이때, 과시적 여가 및 소비의 두 활동이 발휘하는 유용성은 ‘낭비’라는 요소이다. “과시적 여가는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과시적 소비는 물자를 낭비한다”(Veblen, 1899, p. 60).

기 어렵게 된다”(Veblen, 1899, pp. 75, 160). 이 경우, 소비자의 선택은 진정한 주권자로서의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 즉, 타인과의 경쟁심에 의해 발생하고, 불쾌한 경쟁의 관습 및 유한계급 제도의 부추김을 받아 행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나름의 만족을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스스로에게도 해롭다는 점에서, 비합리적 행동이라는 점이 부각된다.¹⁹⁾

불쾌한 비교와 금전적 경쟁 그리고 금전적 가치평가에 기초한 “근대 산업사회”²⁰⁾에 관한 베블런의 분석은 나이트가 “경쟁의 윤리” 논문에서 시도했던 경쟁적 경제시스템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경쟁심이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만들고 삶의 보다 가치있는 활동들에의 관심을 빼앗아간다는 인식은 불쾌한 비교나 경쟁적 지출에 관한 베블런의 분석과 대단히 유사하다. 나이트와 베블런은 ‘경쟁적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공유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시스템의 특성과 영향에 대한 인식도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 가령, 나이트가 쓴 다음과 같은 문장들은 <유한계급론>의 한 부분이라고 해도 이질감이 전혀 없어 보인다. “경쟁적 경제시스템에서는 사람들의 성취와 기쁨이 주로 다른 사람들과 겨루거나 앞서 나가는 것에 맞춰져 있을 뿐”, 이때 “경쟁을 벌이는 대상이, 경쟁 그 자체를 위한 대상을 제공한다는 점 이외에,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한 질문은 거의 던져지지 않는다”(Knight 1923, p. 587). “근대 산업국가들처럼 모든 가치가 화폐 단위로 환원되는 사회질서에서는 가장 고상하고 예민한 사람들 중에는 불행하거나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Knight, 1923, p. 612).

(4) 효율의 변질 및 ‘동기와 결과의 성격’에 대한 관심

이제 베블런에 대한 나이트의 가장 구체적인 비판, 즉 가격기구를 무시했다는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해보자. 나이트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구이며, 자원의 최적 배분은 가격기구의 작동을 통해 가능하다. 그런데 베블런이 가치표준으로서의 가격을 비판하거나 경제적 자원배분의 주체와 관련해 기술자에

19) 이러한 입장에서 보자면, 신고전학과 효용이론은 동기의 자율성이나 행위의 합리성과 같은 허구를 사람들에게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해악을 낳는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Tilman (1992)을 볼 것.

20) 베블런의 체계에서 나이트의 ‘경쟁적 경제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은 “근대 산업사회”이다.

의한 사업가의 대체를 주장했던 것은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유한계급론〉과 〈장인본능과 산업기술의 상태〉 등을 보면, 베블런이 가격에 근거한 회계기준과 금전적 효율의 원리가 근대 산업사회를 어떻게 발전시켰고, 경제적 효율을 어떻게 왜곡하며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베블런은 근대 산업사회에서 효율의 원리가 왜곡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효율은 공동선의 달성에 기여하고, 개인적으로는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특성”이다 (Veblen, 1914, p. 349). 하지만 ‘불쾌한 비교’의 논리가 삶의 곳곳에 뿌리내리고 과시적 소비나 경쟁적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금전적 가치평가의 규범이 힘을 발휘하게 되면, 경제적 사안에서의 효율은, 기술적 숙달 및 생산적 효과가 아니라, 금전적 관리의 능률 및 부의 취득으로 판단”되는 방향으로 변질된다 (Veblen, 1914, p. 349). 그리고 “금전적 이득을 많이 거둔 사람이 개인적인 효율의 차원은 물론 공동선을 향한 유용성의 차원에서도 유능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Veblen, 1914, p. 349). 이러한 상황에서 “이득과 효율은 가격을 단위로 그려지는데”, 그로 인해 “노동자건 사업가건, 자신의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는 댓가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효율적이고 유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Veblen, 1914, p. 349). 이는 ‘효율’이 ‘사회적 효율’, 곧 윤리의 지위까지도 차지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나이트가 우려했던 상황이다. 베블런이 가격에 의한 효율의 측정을 문제삼았던 것은, 그가 나이트의 ‘가치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격으로 효율을 측정하게 되면 공동선의 달성이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베블런의 가격에 대한 비판은, 경제학이 “결과의 성격이나 그러한 행동을 낳는 동기의 성격” (Knight 1923, p. 621) 에 주목함으로써 윤리의 측면도 포섭해야 한다는 나이트의 주장과 유사성이 있다. 과시적·경쟁적·약탈적 본능 그리고 ‘불쾌한 비교’에 대한 논의는 나이트가 말한 ‘동기의 성격’에 대한 분석으로, 유한계급제도의 등장, 금전적 효율에 의한 산업적 효율의 지배, 산업에 대한 사업의 지배, 개인적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에서의 삶의 목표들의 훼손에 관한 논의는 나이트가 말한 ‘결과의 성격’에 대한 분석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경제적 가치와 '인간에게 고유한 삶의 일반적 목적'

(1) 경제적 가치

베블런은 〈유한계급론〉이나 〈장인본능과 산업기술의 상태〉에서 가치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그로 인해 가치와 관련되는 단어나 문장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을 뿐인데, 〈유한계급론〉의 경우, 심미적 가치, 상업적 가치, 명예적 가치, 불쾌한 금전적 가치, 교환가치, 경제적 가치, 산업적 가치, 문화적 가치 등의 용어가 등장한다.

베블런이 '경제적 가치'에 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는 〈유한계급론〉에 나오는 '경제적 가치' 관련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경건한 종교의식의 사례를 들면서, 이 의식이 "어떤 정신적 태도를 보여준다"며, "그 태도가 개인의 산업적 유용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특정한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Veblen, 1899, p.199). 이는, 베블런의 경우, 경제적 가치를 일차적으로 개인의 유용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사고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경제적 가치를 단순한 유용성의 충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의 완성'이나 '충만한 삶의 기여'로 연결시키는 대목도 눈에 띈다. "재화는 인간 삶의 완전한 전개를 위한 수단으로서 생산되고 소비"된다거나, "이런 자선사업이나 사회 개선사업은... 그 사업의 수혜자인 개인과 계층이 삶을 얼마나 충만하게 사는지 혹은 재능을 얼마나 잘 발휘하는지로 측정된 경제적 가치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경제적 가치가 '삶의 충만함'이나 '재능의 발휘'로 측정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Veblen, 1899, pp.103, 223).

베블런의 경제적 가치는, 개인적인 유용성이나 만족을 뛰어넘어, 궁극적으로 공동체나 사회 전체의 집단적 삶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어떠한 경제적 사실이 절대적인 승인을 얻으려면 특정 개인을 뛰어넘는 유용성, 곧 인류 전체 관점에서 유용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거나, "모든 지출과 관련해 물어야 질문은, 해당 지출이 인간 전체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 즉 특정 개인을 뛰어넘는 전체 삶의 과정을 촉진시키는지 여부"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Veblen, 1899, pp.68, 99). "인류는 보다 포괄적인 습관에 힘입어 집단적 삶의 목적을 위한 유용성을 중단 없이 확보할 수 있었다"는 문장도 눈에 띈다(Veblen,

1899, p. 148). 이러한 문장들은, 각자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의 존속에 기여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고, 그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인식을 내포한다. 베블런의 입장에서 보자면, ‘경제적 가치’는, 개인의 다양한 차원의 욕구들을 포괄하고 그 위에 사회에 대한 기여까지도 고려한다는 점에서,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며 나이트가 강조한 사회적 효율, 곧 윤리도 내포한다.

(2) ‘인간에게 고유한 삶의 일반적 목적’

베블런에 따르면, 인간은 장인본능의 안내를 받으며 각자가 세운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활동’(teleological activity)의 중심”이다(Veblen, 1899, p. 16). 이때 각자의 개인적 선호나 사회적 규범에 따라 다양한 목적이나 목적지들이 세워질 수 있는데, 베블런의 체계에서는 모든 목적들이 동등한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다른 목적들에 비해 더 중요하고 따라서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목적들이 있기 때문이다. 베블런의 계승자들은 〈유한계급론〉 등에 산재한 표현들을 재구성해 이를 “인간에게 고유한 삶의 일반적 목적(generic ends of life)”이라고 표현했다(Shuehan and Tilman, 1992, p. 201). 여기에는 “삶의 지속, 불쾌하지 않은 공동체의 창조, 과학적 호기심의 육성, 타인에 대한 배려의 확대, 탁월한 장인정신의 함양” 등이 포함된다(Tilman 1992, p. 183).

‘인간에게 고유한 삶의 일반적 목적’은 나이트의 ‘윤리적 표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윤리적 표준은 윤리적으로 얼마나 바람직한 상태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나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이트가 거론한 윤리적 표준의 구체적 사례로는 “삶의 쾌락의 증진”, “완전함의 달성”, “영성” 등이 있다(Knight, 1923, pp. 617, 621, 621). ‘삶의 일반적 목적’은 각자가 인간으로서 의미 있고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목적들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일반성’이나 ‘보편성’을 띤 목적이자 우리 삶이 지향해야 할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에게 고유한 삶의 일반적 목적’은 산업자본주의에 대한 베블런 고유의 비판과도 관련이 깊다. 베블런은 마르크스와는 다른 맥락에서 산업자본주의를 비판한

인물로 흔히 인식되고 있다. 마르크스적 의미의 착취가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 또는 ‘자본에 의한 잉여노동의 전유(專有)’로 요약될 수 있다면, 베블런은 ‘기득권에 의한 산업자원의 탈취와 탕진’ 또는 ‘자본에 의한 사회 전반의 착취’를 문제삼았다고 할 수 있다. ‘불쾌한 비교’와 ‘과시적 경쟁’ 그리고 ‘금전적 가치평가’의 규범이 지배하는 체제에서는 ‘기득권에 의한 산업자원의 탈취와 탕진’ 현상이 보편적인데, 이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생산수단의 제공자들이 가져가는 자본소득이다. 베블런은 이를 생산에 기여한 결과가 아니라 소유제도가 부여하는 권력의 산물로 규정하고, 불로소득이라고 부른다. 그에 의하면, 불로소득의 원천은 생산의 외부자들에게 자본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부여하는 소유제도이다(Veblen, 1908a, 1908b). 베블런의 이러한 면모는 기존의 논의에서 많이 언급된 부분이며, 마르크스의 착취론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삶의 일반적 목적’을 주목하게 되면, 베블런의 산업자본주의 비판이 ‘착취’와 ‘낭비’의 두 토대 위에 기반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착취’보다는 ‘낭비’가 산업자본주의의 더 큰 문제라는 주장, 즉, 금전적 착취도 문제이지만, 사람들을 더 중요한 목적에 전념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Goldstone, 1993, pp. 515-516).

V.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통해 나이트와 베블런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대립²¹⁾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통점 또한 적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이트의 저작들, 특히 초기 저작들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베블런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으로는 베블런과 인식을 공유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수요의 충족이 시스템의 윤리적 정당성을 입증하지는 못한다며 경제학이 윤리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나이트의 주장은 베블런의 문제의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해도

21) 두 학자가 엇갈리는 지점은 경제학에 가치판단을 도입할지 여부가 아니라 자본의 소유 및 분배에 관한 가치판단의 관점과 내용이다. 이들 사이의 근본적인 대립은 생산수단의 제공자들이 가져가는 자본소득의 성격에 관한 이해에 집중되어 있다. 베블런이 이를 생산에 기여한 결과가 아니라 소유제도가 부여하는 권력의 산물로 규정하는 데 반해, 나이트는 이를 위험감수 활동의 참여 의향 및 미래예견능력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고 맞선다(Veblen, 1908a, 1908b; Knight, 1921; Tilman, 1992). 이 점에서 이들의 진정한 전장(戰場)은 가치이론의 영역이 아니라 자본이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과언이 아니다. 특히 욕구나 동기의 성격에 관한 관심, 경쟁적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평가, 경쟁의 윤리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 불쾌한 비교 및 경쟁적 지출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 등에서 그 공통점이 두드러진다.

나이트에 따르면, ‘효율’, 즉 욕구를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충족시켜주는가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수량적인 측정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효율’, 즉 충족된 욕구의 성격이 윤리적으로 얼마나 바람직하고 가치가 있는가는 수량적 측정이 불가능하고 ‘이상적 표준’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질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경쟁의 윤리”는 ‘이상적 표준과의 대비’를 통해 ‘경쟁적 자본주의’의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가치판단을 시도한 논문이었는데, 여기에는 ‘근대 산업사회’의 비윤리적·반사회적 성격에 대한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베블런의 <유한계급론>과 <장인정신과 산업기술의 상태>에도 ‘근대 산업사회’의 비윤리적·반사회적 성격에 대한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저작은 나이트의 논문보다 시기적으로는 앞서지만, ‘제도의 진화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통해 그가 “경쟁의 윤리”에서 밝힌 문제의식이 경제현상 분석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시도로 재해석될 수 있다. 제프리 호지슨(Geoffrey Hodgson)이 나이트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보다는 베블런에 훨씬 가까운 학자”라며, 그를 ‘제도경제학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²²⁾ (Hodgson, 2001, p. 72).

나이트와 베블런이 공유하는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 기업의 목적을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가치창출’에서 찾는 재계나 경영학에서의 새로운 관점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²³⁾ 기업의 ‘가치창출’에 주목하는 쪽에서는, 기업이 고객의 채워지

22) 나이트를 ‘제도경제학자’로 규정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나이트가 베블런과 유사한 주장을 펼쳤던 것은 ‘신고전학과 경제학’과 대립하는 ‘제도경제학’의 문제들을 공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대의 경제적 현상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대표적이다. 제도경제학은 신고전학과의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대한 비판을 핵심으로 하는 학파인 반면, 나이트는 개인을 합리적인 경제 행위자로 취급하는 신고전학과 방법론의 비현실성을 문제삼으면서도 분석적인 가치가 있다며 그 유용성을 인정했다. 그리고 나이트는 당시 미국 경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독점화의 폐해, 신흥 부자의 사치, 불평등의 악화 등 현상에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그러므로 나이트와 베블런이 공유한 것은 당대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었던 것이지, 학문적 패러다임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논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나이트의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Bergin (2009)을 볼 것.

23) 기업이 주식회사 형태를 띠는 상황에서 주주들은 수익이 줄어들지 않기를 여전히 희망하며, 경영자들은 주주들의 몫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나 환경적 가치를 추구할 수 없다는

지 못했던 필요와 욕구를 새롭게 충족시킴으로써 고객의 편익을 제고하게 되면, 고객들은 시장 구매로 이에 호응하게 되고, 기업은 경제적 가치 창출의 결과로서 이윤을 획득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 주목한다. 이 입장에서 보자면, 이윤은 기업 활동을 벌이는 목적이나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가치창출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훌륭하게 수행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 또는 보상이 된다. 그러나, 욕구의 충족에 더해 충족되는 욕구의 성격을 별도의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게 된다면, 기업 활동을 통해 채워주려는 욕구나 기업 활동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욕구가 윤리적 이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기업 경영에 있어 중요한 판단 및 평가요인이 되어야 한다.

이때, 나이트와 베블런의 논의는 기업의 가치창출이 좁은 의미에서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합의되는 윤리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까지도 어느 정도는 포괄하는 쪽으로의 변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이트의 경우에는 윤리적 표준의 구체적 사례로 언급한 “삶의 쾌락의 증진”, “완전함의 달성”, “영성” 등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Knight, 1923, pp. 617, 621, 621), 베블런의 경우에는 “인간에게 고유한 삶의 일반적 목적”의 구체적 사례로 언급된 “삶의 지속, 불쾌하지 않은 공동체의 창조, 과학적 호기심의 육성, 타인에 대한 배려의 확대, 탁월한 장인정신의 함양” 등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Tilman, 1992, p. 183).²⁴⁾

한편, 나이트와 베블런에 관한 학설사적 논의는 오늘날의 경제학 연구 및 담론장에도 귀중한 시사점을 주는데, 그 핵심 메시지는 경제학에서 가치판단이 반드시 필

점에서 최근의 담론은 기업의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Bakan, 2020). 하지만 오늘날의 기업들이 기존의 경영관행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로 보인다. 과거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서 이익을 얻던 이해관계자들은 변화의 제스처만 보일 뿐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 할 동기가 훨씬 크겠지만, 그 경우 더 큰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제계나 경영학자들의 담론 변화가 입에 발린 말로 그칠지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이어질지는 열려 있는 문제인데,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규범이 앞으로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며, 이 점에서 경제학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24) 이러한 언급은 추상적인 형태로 제시되어 있고,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가치론에는 미달하기 때문에 오늘날 진행 중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ESG 경영 등에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직접적인 시사점을 주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19세기말 20세기 초의 가치론 관련 연구, 나이트와 베블런의 여타 저작, 나이트와 베블런을 계승하는 후속 세대들의 연구 등을 망라해서 검토하는 보다 본격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요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은 사람들의 욕구를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충족시켜주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주어야 하지만, 사람들이 채우고자 하는 욕구나 욕구에 따른 행동의 결과가 윤리적으로 얼마나 바람직하고 훌륭한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위에 이들 문제에 대한 나름의 답을 제시한 것이 바로 앞에서 검토한 나이트와 베블런의 작업들이다. 문제제기의 예리함에 비해, 문제에 대한 이들의 답안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지는 못한 듯 싶다. 그리고 이들의 논의가 경제이론 속에 효율과 윤리를 어떻게 결합하고, 양자를 어떻게 정렬시킬 것인지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까지 제공하지는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는 그동안 경제학에서 잊혀져 왔던 가치론의 본격적인 복원²⁵⁾을 통해 대답해야 할 주제인데, 다음 논문의 과제로 넘긴다.

■ 참 고 문 헌

1. 김영용, “맑스-베블런 커넥션: 정치경제학과 제도경제학의 잃어버린 고리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제51집 제4호, 2003, pp. 249-278.
(Translated in English) Kim, Yeong Yong, “Marx-Veblen Connection: A Study of Missing Link between Political Economy and Institutional Economics,”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ol. 51, No. 4, 2003, pp. 249-278.
2. 신정완, “왜 가치전제이고 누구의 가치전제인가?: 사회과학에서 가치판단의 역할에 관한 군나르

25) 인류학자인 데이비드 그레이버(David Graeber)에 따르면, ‘가치’라는 단어는 경제학·사회학·언어학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된다. 경제학적 가치는 대상에 대한 욕망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그 욕망의 정도는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을 얼마나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에 의해 측정된다. 사회학적 가치는 인간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옳고, 바람직하며, 타당한 것들을 지시하는 개념이며, 언어학적 가치는 의미상의 차이를 낳는 최소한의 차이로 규정될 수 있다. 이 세 경우 모두, 특정 행위가 더 큰 사회적 총체성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행위자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서 인식되는 것이 가치의 핵심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세 종류의 가치 개념 각각에 대한 인류학적 탐구의 역사를 보면, 셋 중 하나만 천착하고, 가치의 나머지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레이버에 따르면, 경제적 삶과 사회적 삶을 분리하는 삶에서 이들을 통합하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치의 요소를 통합하는 가치론이 요구되는데, 경제학의 가치론 복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Graeber 2010).

- 위르달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경제평론』, 제31권 제3호, 2018, pp.307-346.

(Translated in English) Shin, Jeongwan, “Why Value Premises and Whose Value Premises?: a Critical Examination of Gunnar Myrdal’s Viewpoint on the Role of Valuations in Social Sciences,” *Review of Social and Economics Studies*, Vol. 31, No. 3, 2018, pp. 307-346.
3. 원용찬, “소스타인 베블런, ‘부자들의 경제학’을 뒤흔든 괴짜,” 『인물과 사상』, 2015년 5월호, 통권 205호, 2015, pp.129-142.

(Translated in English) Won, Yong Chan, “Thorstein Veblen: A Freak Who Rocked the ‘Economics of the Rich’,” *Persons and Ideas*, No. 205, 2015, pp.129-142.
4. 이규상, “로빈스, 신자유주의 질서를 구현하는 연방제 유토피아를 그리다,” 『경제학연구』, 제70집 제2호, 2022, pp.133-179.

(Translated in English) Lee, Kyu Sang, “Lionel Robbins Envisaging a Federal Utopia Implementing a Neoliberal Order,”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ol. 70, No. 4, 2022, pp.133-179.
5. 전용덕, “경제학방법론,” 자유주의경제학연구회 편집, 『시카고학파의 경제학』, 민음사, 1994, pp. 21-41.

(Translated in English) Jeon, Yoong-Deok, “Methodology of Economics,” *Chicago School of Economics: Freedom, Markets and Government*, Minumsa, 1994, pp. 21-41.
6. 한성안, 『진보 집권 경제학』, 생각의길, 2020.

(Translated in English) Han, SeongAn, *Economics for the Rule of the Progressive*, Road of Thought, 2002.
7. 홍기빈, “권력으로서의 자본: ‘금융화’ 시대의 베블런,” 『소스타인 베블런: 자본의 본성에 관하여 외』, 책세상, 2009. pp.134-157.

(Translated in English) Hong, Gibin, “Capital as Power: Veblen in the Age of ‘Financialization’,” *Veblen, T., On the Nature of Capital, translated by Gibin Hong*, World of Books, 2009. pp.134-157.
8. 홍기현, “1890~1930년대 경제학계 논쟁에 대한 방법론적 평가: 오스트리아학파를 중심으로,” 『경제논집』, 제49권 제3호, 2010, pp.139-164.

(Translated in English) Hong, Keehyun, “A Methodological Evaluation of the Debate in Economics in the 1890s~1930s: Focusing on the Austrian School,” *Korean Economic Journal*, Vol. 49, No. 3, 2010, pp.139-164.
9. _____, “이윤 및 이자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사적 연구,” 『경제논집』, 제57권 제1호, 2018, pp.3-38.

(Translated in English) Hong, Keehyun, “A Historical Survey on Theories of the Justification of Profit and Interest,” *Korean Economic Journal*, Vol. 57, No. 1, 2018, pp.3-38.
10. Bakan, J., *The New Corporation: How “Good” Corporations Are Bad for Democracy*, Vintage, 2020.
11. Bergin, A., “The Radical Conservatism of Frank H. Knight,” *Modern Intellectual History*, Vol. 6, No. 3, 2009, pp.513-538.
12. Bush, P. D., “The Neoinstitutionalist Theory of Value: Remarks upon Receipt of the

- Veblen-Commons Award,"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43, No. 2, 2009, pp. 293-306.
13. Carney, M., *Value(s): Building a Better World for All*, PublicAffairs, 2021.
14. Christakis, N. A., *Blueprint: The Evolutionary Origins of a Good Society*, Little, Brown Spark, 2019.
15. Edgell, S., *Veblen in Perspective: His Life and Thought*, Routledge, 2015.
16. Goldstene, P. N., "Veblen's Theory of Value and the Problem of Revolu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Vol. 6, No. 4, 1993, pp. 507-520.
17. Gordon, W. and John Adams, *Economics as Social Science: An Evolutionary Approach*, The Revierdale Company, 1989. (임배근 · 정행득 옮김, 『제도주의 경제학: 진화론적 접근』, 비봉출판사, 1995).
18. Graeber, D., *Toward an Anthropological Theory of Value*, Palgrave Macmillan, 2001. (서정은 옮김, 『가치이론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교환과 가치, 사회의 재구성』, 그린비, 2009).
19. Hodgson, G. M., "Frank Knight as an Institutional Economist," in Jeff E. Biddle, John B Davis, Steven G Medema (eds.), *Economics Broadly Considered: Essays in Honour of Warren J. Samuels*, Routledge, 2001, pp. 61-89.
20. Knight, F. H., *Risk, Uncertainty and Profit*, Houghton Mifflin Company, 1921.
21. _____, "Ethics and the Economic Interpret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xxxvi, 1922, pp. 454-481.
22. Knight, F. H., "The Ethics of Competi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xxxvii, 1923, pp. 57-624.
23. _____, "Economic Psychology and the Value Proble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xxxix, 1925, pp. 372-409.
24. McCormick, K., *Veblen in Plain English: A Complete Introduction to Thorstein Veblen's Economics*, Cambria Press, 2006.
25. Mirowski, P., "Polanyi vs Hayek?" *Globalizations*, Vol. 15, No. 7, 2018, pp. 894-910.
26. Porter, M. and M. Kramer, "The Big Idea: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89(1/2), 2011, pp. 62-77.
27. Robbins, L., *An Essay on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Economic Science*, Second Edition, MacMillan and Co., Ltd., [1935] 1952. (이규상 옮김,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 지닌 속성과 중요성』, 지식울만드는지식, 2019).
28. Sandel, S.,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Farrar, Straus and Giroux, 2021.
29. Sheehan, M. F. and Rick Tilman, "A Clarification of the Concept of "Instrumental Valuation" in Institutional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26, No. 1, 1992, pp. 197-208.
30. Tilman, R., *Thorstein Veblen and His Critics, 1891-1963: Conservative, Liberal, and Radical Perspectiv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31. Veblen, T.,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1899].
32. _____, "On the Nature of Capital,"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22, No. 4,

1908a, pp. 517-542.

33. _____, "On the Nature of Capital: Investment, Intangible Assets, and the Pecuniary Magnat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23, No. 1, 1908b, pp. 104-136.
34. _____, *The Instinct of Workmanship and the And the State of the Industrial Arts*, B. W. HUEBSCH, 1918 [1914].

Ethical Judgment on the Competitive Economic System: Focusing on Knight and Veblen*

Jonghyun Park**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d Knight's "The Ethics of Competition" in detail and depth, and compared it with Veblen's works. It was confirmed that despite Knight's explicit criticism, the two had a lot in common. In particular, the commonalities were prominent in interest in the character of desire or motivation, critical judgment on competitive capitalism, and a negative assessment of the ethics of competition. Their discussions call for the need to re-include the "problem of ethics" in the value judgment of economics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norms that will meet the economic ethics and "generic purposes of life."

Key Words: Frank Knight, Thorstein Veblen, ethics of competition

JEL Classification: B1, B3, B4

Received: Nov. 7, 2022. Revised: Dec. 9, 2022. Accepted: Dec. 21, 2022.

* This article could be greatly improved both in content and format thanks to professional and sincere comments from anonymous referees. I am deeply grateful to the three referees.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501, Jinju-daero, Jinju-si, Gyeongsangnam-do 52828, Korea, Phone: +82-55-772-3426, e-mail: ecohis@gnu.ac.kr